

OPEC 氣象圖

해마다 철마다 어김없이 불어 닥치는 OPEC 季節風……. 지난 수년동안 불었다 하면 颶風같은 위세로 全地球를 뒤흔들면서 소비국정부를 右往左往케 하고, 소비자들을 困惑케 해온 OPEC 季節風이 제네바總회에서만은 산들바람과도 같은 야릇한 느낌을 주고 지나 갔다. 原油 公示價의 인상도 없었고, 減産에 대한 대단스런 措置도 없었다. 늘 있어온 消費國에 대한 으름장도 없이 넘어갔다. 어쨌든 所要原油의 거의 全量을 OPEC 諸國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값도 안오르고, 物量도 별로 줄지 않는다니 무척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 季節風의 突然變異를 보는 石油專門家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는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장기적인 氣象變化로 말미암은 세력감퇴의 前兆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一過性인 變異으로 곧 本性을 되찾을 것이라고도 하고 또는 잘알 수 없으니 두고 보자고도 한다. OPEC 總회가 끝날때마다 나오는 구구한 얘기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先進石油輸入國은 이론이나 억측은 어떻게 간에 각기 利己의인 立場에서 차근차근 에너지문제를 연구하고 対策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비록 진정한 의미의 石油전문가가 아쉽지만, 엄연한 石油輸入國인 우리나라도 우리 나름대로 다른 石油輸入國에 뒤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OPEC 氣象變化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뭄이 들거나 洪水가 나거나 颶風이 불거나, 어떤 경우에도 対処할 수 있는 一貫性과 機敏性있는 全天候 농업정책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OPEC 氣象에도 유효한 石油政策이 필요한 것이다. OPEC는 앞으로 때로는 順風, 때로는 逆風으로 변화무쌍한 자태를 보일 것이나, 우리 人類

가 석유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限 존재할 것이다. 그 어느 경우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長期對策은 에너지절약, 代替에너지 개발, 에너지(原油) 비축을 一絲不亂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却說하고, 모처럼 만난 5월의 順風속에 우선 短期的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兩次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先進石油輸入國 들은 마치 메카를 찾는 巡禮者처럼 產油國을 찾아다니며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더 얻으려고 갖은 아양을 떨고, 농간을 부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1백여일본의 原油를 재어 놓는 한편 代替에너지 개발에 발돋움을 하면서 느긋한 기분으로 사태의 推移를 관망하며, 巡禮의 발길이 뜸해진 것 같다. 바로 얼마전까지 우리를 초조하게 하던 石油需給逼迫相을 생각하면, 隔世之感이 있다. 우리 같은 後進石油輸入國은 오히려 이 기회를 포착하여 產油國 순례를 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자에 파리 날릴 때 찾아 가면, 물건도 싸게 사고 또 생색도 낼 수 있어 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 놓아도 어느 일정한 量 이상은 쓸 수 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石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原油導入을 일부 綜合商社나 精製業者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풀이 죽은 產油國에 官民合同의 친선사절단을 보내 紐帶를 강화하면서 그들의 환심을 사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5월 훈풍에 先進石油輸入國들이 느긋하게 午睡를 즐기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產油國의 문을 두드려 보기를 제안한다. *

〈咸秉昭·大韓石油協會 副會長〉